

한전KPS, 850억 원 규모 남아공 발전소 정비공사 수주

2021년 이후 3년 연속 계약... 현지화 전략으로 원가절감·정비품질 확보 4개 발전소 정상정비·부품 가공정비 역무도 수행... 120억 추가 매출

한전KPS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800억원대 발전소 정비공사를 맡게됐다. 이로써 지난 2021년 이후 3년 연속 대형계약 수주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전KPS는 1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850억 원에 달하는 발전소 정비공사(종합 설비점검 및 분해 수리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한전KPS에 따르면 남아공 전력공사(ESKOM) 소유의 화력과 원자력 16개 발전소 정비와 관련된 총 848억원 규모로, 계약기간은 오는 10월부터 3년간이다. 한전KPS는 남아공에서 지난 2021년 약 170억원, 2022년 약 230억원 규모의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남아공에서 3년 연속 대형계약을 수주하게 됐다. 특히 한전KPS는 지난 2년간 사업 수행실적을

인정받아, 종합 정비공사에 더해 4개 발전소의 정상정비와 부품 가공정비 역무도 추가로 수행하게 돼 약 120억원의 추가 매출까지 확보했다. 또 지난 2022년 아프리카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인 남아공 쿠백(Koeberg) 원전 2호기 정비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한전KPS는 올해 장기 계약 수주를 통해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수출 정책 에 발 맞춰 신규 해외원전 사업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KPS가 3년 연속 대형공사 수주에 성공한 것은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과 맞춤형 지역 지원 사업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한전KPS는 올해 2월, 기존 남아공 지사를 남아공 법인(KEPCO KPS South Africa)으로 격상하고, 본사 기술부서와의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를 구축했다. 남아공 법인은 현지 채용을 확대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현지화 전략으로 원가절감과 정비품질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 법인 수익금 중 일부를 남아공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남아공 정부의 자국산업 육성정책에 적극 동참해 3년 장기 계약의 계기로 삼았다. 한전KPS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남아공 발전소의 정비공사 수행과 기술지원을 통한 발전소 성능개선으로 남아공의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해 한전KPS의 위상 제고는 물론, 아프리카 전 지역으로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연 한전 KPS 사장은 "앞으로 3년간의 정비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완벽한 품질확보와 현지화 전략 등을 통해 고객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남아프리카공화국 쿠백원전 전경. <한전 KPS 제공>



독일 현지에서 진행된 소비자 대상 B2C 품평회 현장에서 현지인들이 'K-푸드'를 들여보이고 있다. <aT 제공>

aT, K-푸드 수출시장 다변화로 유럽 시장 집중 공략

유럽 농식품 세일즈로드쇼 참가 48건 391만 달러 상담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달 4일부터 13일 사이 열린 '2023년 유럽 농식품 세일즈로드쇼'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로드쇼에서 유럽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1대 1 바이어 수출상담회부터 현지 소비자 대상 품평회, 시장진출전략 세미나, 시장조사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 48건, 391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올렸다. 독일에서는 유력 바이어의 현지 오프라인 매장

과 물류창고로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으며, 총 19건, 248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와 함께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MOU 체결도 이뤄졌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B2C 품평회에서는 건강에 관심이 높은 독일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저칼로리 곤약젤리, 쌀과자 등 웰빙 스낵류가 호평을 받았다. 영국 바이어 상담회에서는 국산 검은콩, 고구마 등을 이용한 두유로 3만 달러의 현장 계약을 체결하고, 한류의 열풍에 힘입어 젊은 층을 공략한 초코 스낵류의 MOU를 체결하는 등 현지 바이어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총 29건, 143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국내의 수출 유망품목을 유럽 바이어들과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뜻깊다"며 "최근 독일과 영국에서 K-푸드 인기가 높아지며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11%, 7% 증가했는데, 앞으로도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매년 시장 다변화 전략 국가와 해당 국가 시장 개척이 유망한 수출업체를 선정하고, 시장개척요원을 파견해 현지 시장조사부터 신규 바이어 발굴, 상담 알선, 소비자체험 홍보 등 다양한 시장개척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전, 실전형 사이버 공격 방어 훈련 참가자 모집

29일까지 기관·대학·고등부 등

한국전력은 오는 29일까지 '실전형 사이버 공격 방어 훈련' (일렉콘) 참가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렉콘에서 공격팀은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고 방어팀은 이를 탐지·차단해 취약점을 제거하고 피해를 복구한다. 경쟁 부문은 에너지 기관, 대학부, 고등부 등 3개다. 예선은 오는 10월 10일 온라인으로 진행하

고 참가자 성적순으로 대학·고등부 각 8개팀을 선정해 한전 본사(25-26일)에서 오프라인으로 본 훈련을 시행한다. 대학·고등학교 부문 1위팀에게는 산업부 장관 상과 상금 100만원, 2위팀에게는 한전 사장상과 상금 50만원 등이 수여된다. 신청 양식 등 참가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일렉콘 공식 홈페이지(elecon.kr) 및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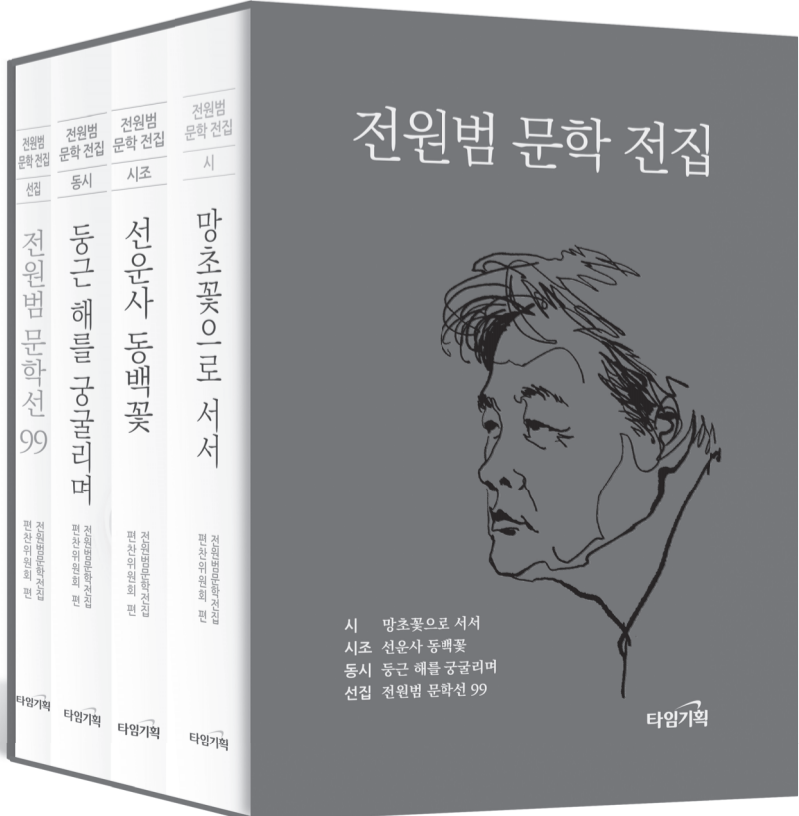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환급까지 한번에"

농어촌공사, 윈스톱 온라인 서비스 11월 전자 환급 서비스 대상 확대도

한국농어촌공사는 19일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부터 납부, 환급까지 윈스톱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서비스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보전 부담금 업무는 대면, 전화, 우편 등으로 분산된 데다 서류양도 많아 고객에게 큰 불편이었다. 온라인 서비스로 우편 통지, 환급 청구 서류 준비, 발송 등 평균 3일의 업무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시간과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아 고객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어촌공사는 기존의 농지보전 부담금 관리시스템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새울행정시스템이 연계돼 본인 인증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행정망과 연동이 돼 부과와 환급 결정 과정에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제출 서류가 대폭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과 홍보에 나서는 한편 이용자 불편 사항은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전자환급 서비스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할 예정이어서 업무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진식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농지보전 부담금에 대한 행정 처리는 연간 14만건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 민원 중 하나"라며 "중이 문서를 줄여 업무 효율화와 함께 고객 이용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혁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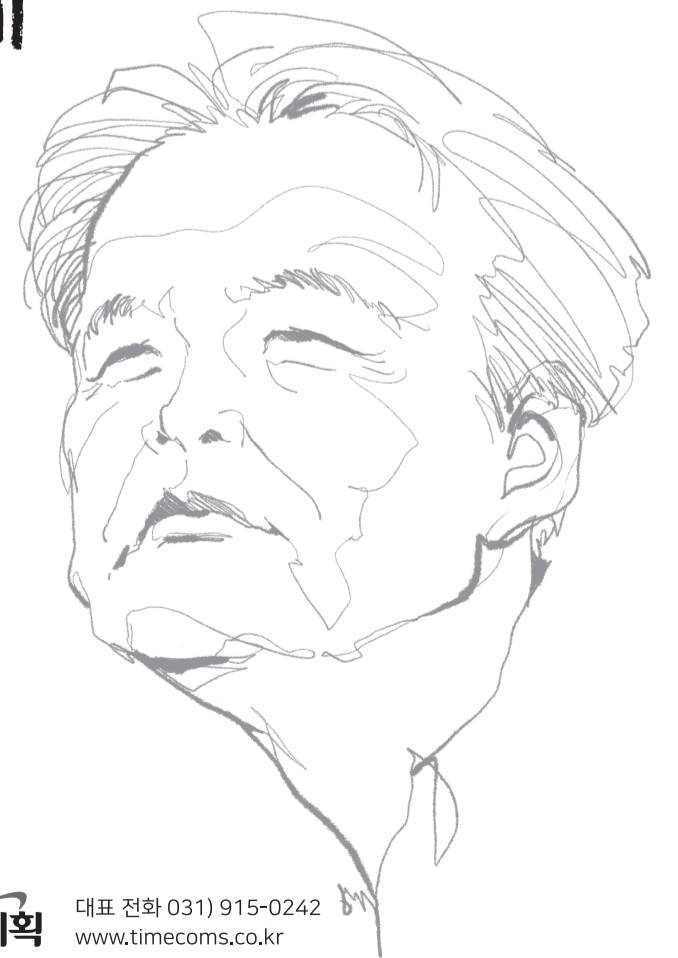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동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